

# 나주 공공급식 '도·농 상생' 발돋움

혁신도시 이전 15개 공공기관 지역 식재료 공급  
농가 안정적 소득·신선한 재료 제공 등 성공모델

나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 손잡은 로컬푸드 공급사업이 도·농 상생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발돋움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외한 혁신도시 이전 15개 공공기관에 지역 식재료를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로컬푸드 공공급식 월매출은 협약 체결 전보다 1.5배 증가했으며, 출하농가도 협약 이후 1년 간 129농가가 증가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도·농 상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출하농가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수요를 소득원으로 삼을 수 있고, 공공기관도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당일 제공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상반기 약 400만 원 대에 머물렀던 로컬푸드 공공급식 월매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며 현재 5,000만원을 상회한다. 시는 올해 누적

매출이 8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로컬푸드 공급 확대 협약 1주년을 기념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별로 '나주 로컬푸드 데이'를 열기도 했다.

기관별로 하루를 정해 100% 지역 농산물로 만든 중식을 제공하고, 농산물 먹거리 홍보 부스 운영과 생산자의 사진,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얼굴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적극 홍보했다.

시는 올해 로컬푸드 품목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외 관련 타 공공기관의 참여폭을 늘려갈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나주시 푸드플랜 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을 확장 이전해 로컬푸드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핵심농정이자 지역선순환 먹거리 체제인 푸드플랜 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나주시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구내식당에서 '로컬푸드 데이' 행사를 열었다. /나주시 제공

## 화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률 '쑥쑥'

올해 카드 결제시스템 도입...농가부담 최소화

화순군이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소와 농가경쟁비 절감 등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기계 임대 실적은 4,433회로 2018년 3,593회와 비교해 23% 증가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

후 최대 증가 폭이다.

임대 농기계 현장 배송 서비스 이용 횟수는 362회로 2018년 244회와 비교해 46% 늘었고, 화물 차량이 없는 농업인과 영농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 여성 농업인, 귀농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 같은 성과는 적극적인 임대사업 홍보가 한 몫했다. 2018년 956농가에서

2019년 1,191농가로 25% 증가하는 등 신규 이용 농가의 호응도가 높았다.

군은 올해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에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편리한 임대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고지서 수납방식으로 결제해왔던 방법을 신용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임대사업소에서 곧바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 적용방식도 개편돼 농가 부담을 덜게 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구매 가격의 0.5% 수준에서 받던 임대료를 '구입 가격별 18단계'로 나눠 받는다. 단계별로 적게는 8,500원에서 많게는 17만9,000원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지자체별 징수했던 임대료가 달라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적용 방식을 변경했다. 변경된 임대료를 적용하면 연 임대 징수액이 7% 감소해 농가의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기술 농기계 구입과 노후 농기계 교체 등을 지속하겠다"며 "농사철에 맞춰 농가가 원할 때 농기계 임대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경 기자

## 영광군-(주)태산알앤디 투자협약 조미김 생산...세계시장 진출 기대

영광군이 조미김 생산 전문업체인 (주)태산알앤디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주)태산알앤디는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 내 4,959㎡ 부지에 25억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까지 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김자반, 김부각, 김스낵 외) 생산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주)태산알앤디는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우수 제품과 특허 등특한 제조방법으로 조미김류 수요가 늘어난 세계 김 산업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 투자가 되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 대마전자자동차산업단지는 이번 투자협약을 체결로 85.7%의 분양률을 달성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영광군은 최근 군청 군수실에서 조미김 생산 전문업체인 (주)태산알앤디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영광군 제공

## 장흥물축제 '문화관광 대표축제' 우뚝

문체부 선정...국내외 홍보·마케팅 등 지원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장흥 물축제 등 전국 35개 축제를 '2020~2021년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했다.

문화관광 축제는 2021년까지 국비 지원과 문화관광 축제 명칭 사용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지원받는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3년 연속 유망축제와 4년 연속 우수 축제에 선정됐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탐진강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살수대접 거리퍼레이드와 지상최대의 물싸움,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장흥 워터 락 폴 파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국내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발돋움했다.

올해 축제 기간 주요 포털사이트의 지역 축제 검색어 순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마다 40~50만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중순 군수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 담양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최종 승인

국비연계사업 신청 자격 부여

담양군이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작물의 적정 자급을 제고와 식량생산 다각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 투자계획 등이다.

담양군은 2018년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와 계열화, 다른 작물 전환 계획, 식량작물 농가조직화와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에 종합계획 선정요청서를 제출해 3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군은 앞으로 5년 간 농식품부 연계 지원사업인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과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RPC 시설현대화, DSC 시설지원) 등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정부보급금 공급 우선 배정, RPC 비 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추가자금 배정 등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승인으로 RPC 통합에 순항이 예상된다"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담양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 "에너지신산업 기반 다지겠다"

세해설계

강인규 나주시장



강인규 나주시장은 5일 "올 한해는 에너지신산업 기반을 확실히 다져 지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해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한국전력 본사가 소재한 '에너지수도 나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신산업은 이미 광주·전남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최대한 착공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기존 178만5,120㎡(54만평) 규모의 혁신산단 옆에 새로 조성될 172만㎡(52만평) 규모의 에너지 국가산단은 향후 한전 에너지기술연구소와 한전공대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더해져 '빛가람 에너지밸리'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전공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1조원 대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도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주발전 시즌2'를 열기 위한 담대한 7대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강 시장은 "금성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고 국립숲체원 조성을 통해 금성산을 온전한 시민의 숲으로 돌려놓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 온 'LG화학 나주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장과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장 이전 논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진행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혁신도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도 새롭게 도입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를 새롭게 개원해 초등학교생과 후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그린 인프라인 숲과 나무 등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사람 중심의 산림복지 시책 추진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뜻깊게 나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원대란 뜻처럼 나주의 미래 천년을 활짝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 "e-모빌리티 도시 만들기 총력"

세해설계

김준성 영광군수



김준성 영광군수는 5일 "지역경제기(氣) 살리기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특히 e-모빌리티 규제 특례 실증 사업, e-모빌리티 전용 도로 개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e-모빌리티 도시'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김 군수는 "e-모빌리티의 본산인 대마산단의 분양률을 현재 85.7%에서 100%까지 끌어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단계로 백수를 하사리 일원에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굴비 골' 영광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상인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방거리와 창업 단지를 조성하고, 영광사랑 상품권의 유통을 확산해 소상공인과 골목 상인의 경쟁력을 키운다.

김 군수는 따뜻한 '포용 복지'로 주민의 행복지수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군수는 "영유아·노인·장애인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민간 자원을 통합·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민관 복지 모델로 주목받는 '착한 가게'를 2020회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들

리고 있다"며 "농부의 마음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된 소득으로 살맛나는 농어촌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저가격 보장제로 주요 농산물의 유통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60만원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 등록과 참조기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 조성, 천일염 수매제 확대, 천일염을 활용한 제철제 개발 등 지역의 특산물인 굴비와 천일염의 부흥을 이끌 계획이다.

김 군수는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칠산대교 개통,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조성, 칠산타워 주변 개발,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 불갑사 관광지 확장 등으로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큰 뜻을 품고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새해에도 주민 행복을 위해 한 발 더 뛰겠다"고 다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